

## 할 수 있을 때 하자 젠트로

150개의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신기술 개발에 목숨을 거는 기업이 있다. 이것도 모자라 오늘도 기업의 모든 이윤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기업, 바로 발명狂으로 불리는 변무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수환경 전문기업 '젠트로'이다.

지난 89년 창립된 주식회사 젠트로는 변무원 대표를 비롯한 120여 명 임직원들이 꾸려나가고 있는 토목·건축자재 전문업체로, 환경친화적 신기술 개발과 관련 제품을 통해 사람과 환경 그리고 물을 생각한다는 수환경 전문기업이다. 맨홀용 원형거푸집, 수밀벨트 등 토목자재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 98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PDF(Polyethylene Double Frame) 판넬 제품과 성형장치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PDF 아파트 물탱크, 상하수도용 도류벽 및 정류벽, 축산분뇨탱크 등이 젠트로의 대표제품.

### 젠트로의 성장동력

젠트로의 PDF 물탱크는 기존 재질에 비해 탁월한 위생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내부식성 재질인

HDPE(High-Density Polyethylene)를 주재질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HDPE, 즉 폴리에틸렌은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수통의 주원료이며, 반찬 그릇으로 이용되는 밀폐용기 등의 재질이기도 하다. 이렇듯 음식을 담는 용기로도 사용되는 재질로 물탱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이 큰 장점. 또한 조립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물탱크처럼 대형 공간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상하수도용 도류벽과 정류벽도 마찬가지다.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교체·설치 기간이 짧아 정수장 시설 가동을 오랫동안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물이나 염소 등에 부식되지 않고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한국수자원공사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공사에 주로 납품되는 건설신기술 제품이다. 이 밖에도 젠트로는 150여개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



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36회 발명의 날에는 '은탑 산업 훈장'과 4대 '발명대왕상'을 수상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제품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변대표는 남다른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로 기업의 모든 이윤을 R&D에 재투자했고, 이것은 젠트로가 최근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변대표의 '할 수 있을 때 하자'란 사훈은 임직원들의 힘을 한데 모아 젠트로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 제안제도의 활성화로 이룬 경쟁력

변대표가 말하는 '할 수 있을 때 하자'란 사훈은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줄여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특히 젠트로처럼 연구개발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쏟는 기업은 '모든 직원이 연구원'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했기 때문에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을 업무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다.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사장 한 사람, 대표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능력만으로도 회사 운영이 가능했지만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 사업의 분야가 확대되면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지속적인 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기술개발에 기업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젠트로의 입장에서는 연구원들은 물론, 생산현장 및 마케팅 부서의 의견과 시공현장 직원들의 노하우 등 전 직원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제안제도이다.

제안제도는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장 청소에서부터 시

작됐다. 플라스틱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산업의 특성상 수많은 먼지가 공장바닥에 쌓여 그 청소를 위해 공장운영을 멈춰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값비싼 집진기를 설치해 보기도 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컨설팅 업체에 맡겨보아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변대표가 직접 빗자루를 들고 나서자 변화하기 시작했다. 생산현장 전 직원의 이름이 적힌 빗자루를 하나씩 마련해 각자 하루에 사방 30cm씩만 청소하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결과는 깨끗하고 쾌적해진 공장 환경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어 변대표는 내부 의식개혁에 돌입,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실시했다. 제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일년 동안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에도 변대표가 나서서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여기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곳엔 이것이 어떨까?'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일단 접수된 의견은 아무리 하찮은 제안이라도 모두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 달에 몇 백만원 씩 나가는 포상금에 비해 제안제도의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멈추지 않고 진행시켰다. 그러기를 2년, 사소한 제안에서 시작했던 제안제도가 이제는 회사 운영, 신제품 개발, 마케팅까지 젠트로의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자리 잡았다. 기술개발에 기업의 모든 운명을 걸고 있는 젠트로, 신기술 개발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할 수 있을 때, 아니 할 수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창조하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기업 문화. 이것이 바로 젠트로가 가진 힘이다.

"상하수도 관련 신기술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회 기업회원의 기업탐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문의 : 기획처 홍보팀 신재택 (직통전화 : 02-3156-7731)

## PEOPLE 변무원 대표이사

### 기업은 나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될 때 성공

"이번 주식공개(IPO)는 그동안 고생해준 직원들에 대한 보답의 측면도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참 많은 일을, 작은 기업이 해내기엔 불가능해 보였던 수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판매 해왔어요. 다 우리 직원들 덕분이죠."

최근에는 숙취제거와 체지방 감소를 돕는 식음료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넓힌 젠트로의 변대표는 이러한 공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렸다.

인터뷰를 위해 집무실에 들어온 일행에게 손수 커피를 타주며 권하는 변대표의 모습은 그동안 익숙하게 보이왔던 여느 CEO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마도 온전히 기술에만 의지해 지금까지 성장해온 젠트로는 변대표의 이런 모습에 힘입은 듯 했다.

"엔지니어 출신인 제가 지난 18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깨달은 점이 있다면 사장 혼자 잘나서는 결코 기업이 잘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 개개인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친환경신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문제 또한 나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변대표의 말처럼 '우리' 젠트로와 협회가 함께 힘을 합쳐 소중한 물을 지키고 또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도 바로 나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아닐까.

